

# 광주에 호남거점 수소생산기지

### 광주시-한국가스공사 업무협약...2022년까지 218억 투입 광주·전남 반경 70km 내 수소 공급...26.8% 가격 인하 기대

광주시가 호남 거점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나선다. 광주·전남 반경 70km 범위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데, 완공시엔 수소 공급가격도 30% 가까이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1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 가스공사와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대상으로 광주시가 선정된 뒤 부지, 사업 추진 일정 등 사전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생산기지 건립은 광주 광산구 평동 3차

단단 7200여㎡에 국비 78억원, 가스공사 116억원, 광주시 24억원(부지 매입비) 등 218억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추출·출하 설비를 갖춰 하루 최대 4t의 수소를 생산해 광주·전남을 포함해 반경 70km 안에 공급한다.

그동안 광주·전남에서는 서산, 여수, 울산 등 100~300km 거리 타지역으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았다.

기지가 구축되면 운송 비용을 낮춰 수소 공급 가격이 kg당 8200원에서 6000원으로 26.8% 인하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

했다.

시는 생산 210억원, 부가까지 50억원, 고용 31명 등 유발 효과도 기대했다.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정부의 '수소 경제활성화 로드맵'과 '한국판 뉴딜' 중장기계획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의 핵심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그린 모빌리티 보급 계획에 따라 광주시는 2022년까지 수소차 2014대, 수소충전소 12곳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수소산업 발전은 한국판 뉴딜의 중점과제이자, '2045 탄소중립 에너지로드맵'을 목표로 하는 광주형AI-그린뉴딜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면서 "수소 생산기지가 친환경 수소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정부 소상공인 지원 수도권 한정...피해 큰 광주는?

### 코로나 발병률 전국 두번째 시비로 대신 지원 계획 논란

### 민주당 양향자 의원 지적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헬스장 등 소상공인의 영업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 4차 추경을 통해 긴급 자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국비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정작 피해가 큰 광주지역은 일부 업종이 제외돼 광주시가 시비로 대신 지원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을 제외하고 광주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했고, 덩달아 문을 닫아야 했던 소상공인의 피해도 컸지만 일부 업종의 지원 지역을 수도권으로 제한했다는 점 때문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 을) 의원실은 "정부의 '긴급 민생·경제 중

합대책'을 분석한 결과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무도장(콜라텍) 등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제는 집합금지 일부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범위를 '수도권'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을 받았던 광주지역 일부 업종은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업종 역시 수도권에만 지원이 된다.

수도권은 이들 업종에 대해 경제적으로 영업을 금지했고, 여타 지자체는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부 업주가 영업을 했다는 게 정부의 지원금 지역제한 이유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발생률을 보면 서울

이 11.7명이고 광주가 9.2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서울과 광주에 이어 경기 6.8명, 대전 5.7명, 인천 5.4명이며 경기도와 인천시는 광주에 비해 낮은 발생률을 보이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무엇보다도 광주시의 경우,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 병상 부족을 호소하는 대구 지역 환자를 이송해 '치료 나눔'을 실천하는 등 비교적 모범적으로 코로나 19에 대응했지만 정부 지원금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양향자 의원은 "발병률이 높은 지역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방역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와서는 안된다"며 "당장에 전국 일괄 확대가 어렵다면, 대구와 광주 등 높은 발생률로 인해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 지자체의 경우 수도권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김영록 지사 "안타깝지만 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 달라"

### 건강한 연휴 보내기 동참 호소...박능후 장관 만나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15일 추석 대명절을 앞두고 "차례 참석 최소화해 통해 도민·향우들의 건강한 추석 연휴 보내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이날 "2020년 추석을 맞아 도민과 향우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이 추석 연휴 전 국적인 대이동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다"며 "건강한 추석 연휴 보내기에 도민과 향우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우선 향우들에게 추석을 전후한 고향·친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김 지사는 "민족 최대 명절에 이동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어렵고 안타깝지만, 이번 추석만큼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의 안전을 위해 집에서 쉬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차례 참석인원 최소화하고 함께 개인 방역 수칙 준수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고향 집에서 차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짧은 시간 머무르고, 전철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손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많은 사람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안시설 방문도 가급적 자제하고, 발초도 능형·산림조합 및 지역 내 봉사단체 등에서 제공한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와 세 번의 잇따른 태풍으로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커 시름에 잠긴 농어업인들께 작으나마 위안을 드리지"며 "추석 선물은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산물로 구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록(오른쪽) 전남지사는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2건의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 제공>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국가 첨단 의료 복합단지 지정' 등 2건의 핵심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의대 설립과 관련해 김 지사는 이날 "전남은 섬 등 의료 취약지역이 많고, 전국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 의료 수요가 높는데 반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상황에서도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중증환자 23명 중 16명이 타 시도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의 열악한 의료 현실과 30년 넘게 이어진 200만 도민들의 열정과 열망이 매우 큰 사형임을 고려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코로나 확진자 4일째 광주 3명 이내·전남 0명

### 전국적으로 꾸준한 감소세 산발적 소규모 감염은 여전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세가 뚜렷하게 진정되는 모습이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복구에 사는 5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 누적 확진자는 모두 483명으로 늘었다. 확진자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480명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서는 11~13일 연속 3명이 확진됐다가 14일 1명, 15일 오후 2시 현재 1명을 기록했다.

특히 14일에는 확진자가 단 한명도 없다가 밤늦게 1명이 발생해 15일 오전 8시 기준으로 1명이 추가 등록됐다. 이전 5일 동안(6~10일)에는 하루 평균 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었다.

다만 이날 발생한 확진자를 포함해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 30건에 이르는 점은 부담이다. 자칫 지역 사회내 조용한 전파에 따른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확진자가 4일 연속 3명 이내로 줄어든 것은 시민 여러분이 많은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전을 위해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전남은 나흘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0명'을 유지하며,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은 여전히 있다. 수도권에선 대형 병원, 직장, 소규모 모임 등 장소와 유형을 가리지 않고

집단발병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명 늘어 누적 2만 239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13일째 100명대에 머물렀지만 최근 사흘 연속 100명대 초반을 기록해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3일부터 일별 숫자를 보면 195명→198명→168명→167명→119명→136명→156명→155명→176명→136명→121명→109명→106명 등으로, 일부 등락은 있지만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109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91명으로, 지난 13~14일에 이어 사흘째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5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코로나19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25%

### 4월 이후 최고치...확진 판정 전 연쇄적 감염 전파

코로나19 환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불분명' 환자 비율이 25%까지 치솟았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2~15일) 발생한 확진자 2209명 가운데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552명으로 전체 25%를 차지했다.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4명 중 1명꼴인 셈이다. 이는 방대본이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을 집계한 4월 이후 최고치다.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은 지난달 수도권에 감염이 확산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달 30일 이후 17일째 20%를 상회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 감염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은 당분간 2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심으로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확진자로 판정을 받기 전에 감염 전파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통해 감염고리를 끊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이 지난 8월 중순보다 호전됐지만 거리두기를 이완할 때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이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며 "거리두기 강화된 세상에 적응해야 우리 사회가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풍수·사주

###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시: 2020. 9. 15(화) 오후 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 방향 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2020. 9. 8(화) 오후 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 〇〇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갑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 땅 매매

화순 도곡 신덕리 계획관리지역 임야 20530㎡  
야산·축사허가 및 지붕 위 태양광 설치 가능  
선로확보가 14억원(조정가)

**남구 대촌 지식동** 자연녹지 답1003.5㎡  
(대촌산업단지4차선 도로점, 아파트 2천세대 예정) 29억원

**남구 대촌 양과동** 답1857㎡ 2억8천5백만원

**남구 대촌 양촌동** 답3875㎡ 3억5천5백만원

**광산 서양동** 상업용 4층 건물 대지 480㎡, 연 998㎡, 엘리베이터 아파트 필지지역 보 2억9천만원, 월 1640만원, 용 12억원 매 42억원

**나주 남평 교촌리** 생산녹지2585㎡ 3억5천5백만원

**대한공인중개사사무소(전제권) 010-6683-3274**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 포충로 606-2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협선 주식회사("갑")와 동산 주식회사("을")는 2020년 9월 14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단 상법 제530조의3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본점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0년 9월 16일  
"갑" 협선 주식회사 전라남도 목포시 공단중앙로 75-7 (연산동) 대표이사 김병찬  
"을" 동산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신안길 21 대표이사 김태희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동산 주식회사("갑")와 협선 주식회사("을")는 2020년 9월 14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단 상법 제530조의3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본점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0년 9월 16일  
"갑" 동산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신안길 21 대표이사 김태희  
"을" 협선 주식회사 전라남도 목포시 공단중앙로 75-7 (연산동) 대표이사 김병찬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0년 9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총액 금37,000,000원 중 금29,600,000원을 감소하여 금7,4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5,000원의 주식 5,920주에 대하여 현재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매입하여 유상소각하고 발행주식총수 7,400주를 1,480주로 감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들에게서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자본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주들에게서는 위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6일  
명화금융상사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양영로 137-28, 1층(양산동) 대표이사 임준민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동산 주식회사("갑")와 두리 주식회사("을")는 2020년 9월 14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단 상법 제530조의3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본점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0년 9월 16일  
"갑" 동산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신안길 21 대표이사 김태희  
"을" 두리 주식회사 전라남도 목포시 공단중앙로 75-7 (연산동) 대표이사 김진미

**산행안내**  
9월19일(토)  
▲광주금당산악회 9월19일(토) 충북 포암산·만수봉·용암산, 봉선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성효(900303-XXXXXX)
- 최후주수: 순천시조배1길 9, 109동 105호 (조배동, 금호아파트)
- 등락기준지: 전북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730번지

피상속인 망 김성효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비원 순천지원 2020년3377호로 신청하여 2020년 9월 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9월 16일  
·상속인: 김대원(651116-XXXXXX)  
전북 임실군 성수면 월평동길 5  
·신고기간: 2020. 9. 16 ~ 2020. 11. 25.  
·채권신고처: 상속인 김대원의 주소

동 롯데마트앞 06: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6:20, 염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앞 06:40, 문예회관정문 06: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7: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광주호산회 9월19일(토) 전북 순창, 남원, 송대봉, 채계산 출몰다리,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9월25일(금)  
▲광주호산회 9월25일(금) 무박2일 설악산 대청봉 천불동계곡 B코스 울산비유 권금성케이블카,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22:00, 롯데백화점 22:30, 예술회관 후문 22:4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光州日報**  
·세종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